

2022 창작 가족 뮤지컬 <드래곤 플라워>

성인배우 오디션 / 배역 별 지정대사



① 딩고	2-3p
② 헤드	4p
③ 그리디	5p
④ 미스치프	6p
⑤ 랭크	7p
⑥ 대쉬	8p
⑦ 맘	9p

*지원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.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.:

딩고 지정대사

(*상대역은 진행자가 리딩 할 예정입니다.)

딩고: (인기척 소리에 코를 킁킁 거리며, 반가운 표정으로) 안녕하세요?

메이: 아 깜짝이야! 누.. 누구세요?

딩고: 아.. 하하. 놀라게 해서 미안합니다. 실은 저도 비를 피해서 여기 있었습니다.

메이: 아, 네.. 그.. 그렇군요. 죄송해요, 전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만..

딩고: 아, 하하하 아닙니다. 저도 반가운 마음에 그냥.. 제가 더 놀라게 한 것 같네요.

메이: 아네요! 이렇게 갑자기 폭풍우가 오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.

딩고: 네 맞아요. 저도 이런 폭풍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그런데 혼자 왔어요?

메이: 아.. 네.. 사실은.. 친구들과하고 같이 놀러 왔다가 그만 제가 늦게 출발하느라 혼자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..

딩고: 아~ 정말요? 저도 이 근처에 먹을 것을 찾으러 왔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..

메이: 네? 그럼 와~ 우린 똑같이

메이&딩고: (서로 들리는 방향으로 손가락을 가리키며) 찌찌뽕!

딩고: 하하하하 맞네요!

메이&딩고: 하하하하하 (잠시 정적이 흐른다.)

메이: 저 그런데.. 여기 무지개 동산에 자주 오세요?

딩고: (어색하게) 아.. 하.. 하.. 네.. 뭐. 아주 좋아 하긴 하는데요, 저를 보면 다들 무섭다고 도망을 가서..

메이: 네? 무서워서 도망을까요? 왜요?

딩고: ... 아.. 제가.. 좀 무섭게 생겨서.. 사실 전 같이 놀고 싶은데 다들 제 마음 같지가 않아서요..

메이: 아 그렇군요.. 사실은 저도 친구가 별로 없어요! 다들 제가 바보같은 행동만 한다고 놀

리기만 하고..

딩고: 그래요? 하하하. 이거 정말 저랑 너무 비슷한데요? 저도 우리 마을에서 저를 다들 바보 같으면서 같이 놀아주지를 않아요.

메이: 그래요? 와~ 정말 우리 너무 닮았네요!

딩고: 우리, 이거 우연이 아닌 것 같은데요?

메이: 네?

딩고: 우리가 만나게 된 것, 그리고 우리가 닮은 점이 너무 많다는 거 말예요!
우연 치고는 너무 닮아서.. 하하하. 저 그럼 혹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?

메이: (잠시 생각하다) 그럼요!

딩고: 오~ 좋아요! 그럼 이제 우리 다시 인사를 하죠. 비록 얼굴은 안보이지만.
우선 이름부터. 전 딩고라고 해요. 10살이에요.

메이: 우와! 저도 10살인데. 저는 메이에요. 메이.

딩고: 이야~ 나이도 같네요? 그럼.. 우리 이제 친구하면 어떨까요? 친구!

메이: 친구요? 네! 저도 좋아요! 우리 친구해요 동굴에서 만난 친구!

딩고: 좋아! 그럼 친구, 우리 내일 또 만나는거 어때? 저~기 "꽃의 언덕"에서 만나는거야!
오늘은 폭풍우 때문에 너무 어둡고 시간도 늦었으니까.

메이: 꽃의 언덕? 아~ 그 바위가 많은? 응 좋아! 친구!

딩고: 좋아. 그럼 우리 꽃의 언덕에서 꼭 다시 보기다!

헤드 지정대사

(*상대역은 진행자가 리딩 할 예정입니다.)

헤드: 이봐, 너!

딩고: 네? 저저.. 저요?

헤드: 그래. 너! 어디를 갔다가 이제야 기어들어 오는거야? 응? 큼, 큼 큼.. 뭐야 이 냄새는...

딩고: 아.. 하,하,하. 대장. 저 사실은 이번 겨울에 식량을 찾아보고 다니느라...

헤드: 오 그래? 흠.. 좋아. 그래서 결과는?

딩고: 아. 뭐.. 아직은 그냥..

헤드: 멍청한 녀석! (발로 찬다) 내 무리에서 너 같이 늑대 같지도 않은 놈을 데리고 다니는
내가 정말 한심스럽다. 보기 싫어 당장 꺼져!

딩고: 네! 네...

헤드: 이봐 .. 딩고. 너 말야. 혹시 용의 언덕에 갔다 온 적이 있나?

딩고: 네.. 네? 용의 언덕이에요?

헤드: 그래. 용의 언덕! 그 곳에 올라 간 적이 있난 말이다.

딩고: 아.. 아뇨! 하, 하.. 거간 아시다시피 먹을 것도 없고, 그냥 일년 내내 눈만 덮혀 있는
곳이라서..

헤드: 그래? 없단 말이지..

딩고: 네. 그.. 그럼요. 대장이 먹을 것을 구해오란 명령을 하셨는데, 거길 뭐하러.. 아, 하하하

헤드: 하긴.. 거긴 가봐야 아무것도 없지. 너처럼 멍청한 늑대가 있다고 해도
거길 올라갈 리가 없지.. 그래 좋아. 계속 먹을 것을 찾아보도록 해. 어서!!

딩고: 네. 네! 알겠습니다. (대쉬를 손짓으로 부른다.)

헤드: 너는 이제부터 저 놈의 뒤를 항상 미행해라. 그래서 저 놈이 꽃을 가지고 있는지
무엇을 하는지 상세히 내게 보고하도록 해. 나머지는 다들 나가서 식량을 찾아보도록.

그리디 지정대사

(*상대역은 진행자가 리딩 할 예정입니다.)

그리디: 이보쇼 헤드 양반!

헤드: 뭐.. 뭐라? 헤..헤드양반? 이놈.. 이... 감히 누구에게!

그리디: 내말 쪼까 들어보쇼..잉? 인자부터 이 숲의 대장은 나여 나! 그리디! 응.
내가 혈랑께 모두들 그리 아쇼잉?

헤드: 이놈을 잡아다 무릎을 꿇리지 않고 뭇 들 해!

그리디: 아따.. 거 다쳐요~ 그라문~ 막 갑자기 달려들면 나가 또 힘을 쓰게 된다니께

헤드: 너 도대체 어떻게 된거냐? 이게 무슨...

그리디: 아까 말 안허요. 인자부터 나가 이 늑대 대장헌다고~ 나가 그 마법의 꽃을
가져다가 소원을 빌었당께

헤드: 헛소리 집어 치워! 거짓말이다. 어서 이 놈을 잡지 않고 뭐하고 있어!

그리디: 아따 그렇게 됐당께.. 뭐 자세한 사정은 알거 없고. 암튼 인자부터 나가 이 늑대
대장이여 알았지? 그러니까 다들 어여 인나. (소리를 버럭 지른다) 아 인나라고!
자, 잘 들어~ 나가 인자부터 새로운 늑대 대장인께 새로운 규칙을 말해줄 꺼인께.
에.. 인자부터 이 숲에서는 절대로 남을 해치거나 죽이는거 없는거여.
모두들 다 친구로 지내는거. 알었냐? 만일 내 명령을 어기면 기냥 확! 다 물어בל랑께
그리고 덩고. 인자 너는 니 맘대로 저~기 저 염소하고 친구해서 놀아.
아주 행~복하게 놀아라잉?

미스치프 지정대사

(*상대역은 진행자가 리딩 할 예정입니다.)

미스치프: 그런데 말입니다 대장. 제가 아주 이상한 걸 보았습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엔 아마도 그 드래곤 플라워가 이번에 핀 게 아닌가 합니다.

헤드: 뭐라? 그 마법의 꽃이 이번에 피었다고?

미스치프: 네 분명히 그런 것 같습니다.

헤드: 그런거.. 같다? 그럼 본건 아니란 말이잖아?

미스치프: 정확하게 말하자면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.

헤드: 고작 지금 의심 따위로?

미스치프: 들어보십시오 대장. 지난번 새벽에 덩고가 저희들 몰래 나가는 것을 보고 뒤 쫓아 간 적이 있습니다. 근데 그 놈이 저 용의 언덕을 올라가는 것입니다. 대장. 잘 생각해 보십시오. 대장도 잘 아시잖습니까? 그 놈이 우리 늑대 무리들 중에서 가장 바보같이 행동하고 겁은 많지만 가장 빠르고 눈을 잘 탄다는 것ですよ

헤드: 그것만으로 그놈이 저 용의 언덕에서 드래곤 플라워를 봤다는 것을 어떻게 믿는 다는 거냐?

미스치프: 제가 분명히 그놈이 저 용의 언덕에 여러번 올라 갔다 오는 걸 봤습니다. 분명 제가 봤습니다. 생각해 보십시오. 저 용의 언덕은 그 드래곤 플라워 말고는 눈 밖에 없는 곳입니다. 그런 곳을 저 놈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다녀왔다는 것은 분명 그 때문 아니겠습니까? 만일 덩고 그 놈이 가진 꽃이 진짜라면 대장은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.

그리다: 저.. 거시기 나가 쪼까 할 말이 있는디.. 거시기

미스치프: 뭐 무슨말인데?

그리다: 거시기 있잖여.. 혹시 꽃.. 꽃 좋아 하는가?

미스치프: 무슨 헛소리야. 그렇지 않아도 드래곤 플라워 때문에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갑자기 웬 꽃타령이야. 저리가 정신사나워!! 넌 목표도 없고 쳐먹기만 하지! 난 적어도 대장처럼 야망 있는 늑대가 좋아 알았어? 그러니 저리 꺼져 이 밥통아!

랭크 지정대사

(*상대역은 진행자가 리딩 할 예정입니다.)

그리디: 아따.. 참말로. 여는 아주 먹을 것이 풍부한디 말이어.. 거시기 쪼까 딴 놈들한티는 거시기 하 그자?

랭크: 그루니! 내 말이! 고깃덩이는 없어두, 여는 과일, 채소 있는기 찐땡이라니. 어서 잡쉬. 잡쉬보우! 늦어서 대장한테 잡히게 되믄 우리 마카 죽는거라니~

그리디: 아니 근데 그 드래곤 플라워가 말여 그거이 참말로 소원을 들어주는 꽃 인게 사실이어?

랭크: 그기 있잖소 참말이니 그런 말이 있지 않겠나? 그리고 그 뭐이 그리 신경 쓰나? 어차피 우린 상관없지 않나?

그리디: 그렇긴 한디 말여.. 근디 그 꽃이 가짜면 바~로 이 디지는거이 맞는겨?

랭크: 야야라, 니 아까부텀 뭘 말도 안되는 소래기를 질러싸나!
누가보민 뭐이 니가 그 꽃이라도 갖고 있는 줄 알겠다니~
아 어서 먹기나 하라니? 빨리 빨리 잡쉬보우! 니 거 안먹으민 내가 다 먹는다?

그리디: 근데 말여..

랭크: (강하게 째려보며) 시끄루와!

대쉬 지정대사

(*상대역은 진행자가 리딩 할 예정입니다.)

대쉬: 너희들은 여기서 뭘 하는 거야? 대장이 덩고를 찾으라고 했는데 여태 안 찾고 여기서 놀고 있는 거였어? (대장에게 다가가) 대장, 대장!! 봤습니다. 제가 봤습니다.

헤드: 그래 그놈이 가지고 있더냐?

대쉬: 아뇨 .. 그건 못봤고.. 그 놈이 웬 동굴에서 신나게 나오는 걸 봤습니다.

헤드: 이 바보 같은 놈! (발로 찬다)
그 놈이 나온 동굴은 뒤져봤나? 거기서 찾은 건 없었나?

대쉬: 아.. 네..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.

헤드: 멍청한 놈! 그 놈이 나와 어디러 갔더냐

대쉬: 아 그게... 쫓아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동굴에서 웬 염소새끼 한 마리가 노래를 부르며 나오길래.. 그걸 보고 놀라서 그만..

그리디: 뭐시? 염소?

대쉬: 그게 정말로, 염소인데 미친년처럼 노래를 부르길래 너무 깜짝 놀라서 그만...
어찌나 즐겁게 나오는지 그만..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..죄송합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

맘 지정대사

(*상대역은 진행자가 리딩 할 예정입니다.)

맘: 아직도 안 온거니? 큰일이네.. 대체 이 녀석이 어디에 있는거지..?

페브릭: 맘!!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. 숨을 만한데는 다 뒤져봤는데 없어요..

맘: 아.. 이거 정말 큰일이구나. 대체 애가 어디로 간거지?

아무튼 찾아보자. 너희들도 메이가 갈만한 곳은 좀 더 찾아보고.

메이: 엄마, 애들아 미안.. 다들 걱정 많이 했지?

맘: 메이야! 너 괜찮은거니?

메이: 엄마, 애들아 미안.. 다들 걱정 많이 했지

맘: 어떻게 된거니? 도대체 어디에 있다가 이제 온 거야?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
다친 곳은 없어? 배는 안고프고?

메이: 네 엄마. 그런데 거기서 아주 멋진 친구를 사귀었어요.

맘: 메이야. 친구를 만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가족들을 걱정시키는 건 옳지 않단다.
앞으로 절대 그러지 마렴. 알았지?